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MMTIC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부선회

2003년 8월

아동의 MMTIC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출자 부 선 희

부선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 초록>

아동의 MMTIC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부 선 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에 따른 아동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J, SP,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57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MMTIC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성격유형을 알아 보았고, 이들 중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가 명백한 아동 183명(남 97명, 여 8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연구를 위해 민하영·유안진(1988)이 개발하고, 박진아(2001)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4개 요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분석은 t검증을, 심리적 기능 및 기질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분석은 F검증을, 기능 및 기질간의 차이는 Scheffe 검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격유형 중 외향형(E), 직관형(N), 감정형(F) 아동은 내향형(I), 감각형(S), 사고형(T)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에 적극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 또한 사고형(T) 아동은 스트레스에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판단형(J)과 인식형(P)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차이가 없다.

둘째, 아동의 성격유형 네 가지 기능에 따라 NT형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NF형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 한편, ST형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다른 기능에 비해 가장 적게 사용한다.

셋째, 아동의 성격유형 네 가지 기질에 따라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갖으며 특히, NT형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아동의 MMTIC 성격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며 아동은 스트레스에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달적 측면에 있는 아동의 성격유형을 바르게 파악하여, 아동들이 성격유형에 따라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의 기초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MMTIC과 성격유형	5
2. 스트레스의 개념과 대처행동	13
3.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20
III. 연구방법	24
1. 연구 대상	24
2. 측정 도구	24
3. 자료 처리	26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7
1. 기본 통계치	27
2. 가설 검증	30
V. 요약, 결론 및 제언	42
1. 요약	42
2. 결론	46
3. 제언	46
참 고 문 헌	48
Abstract	53
부 록	56

표 목차

<표 III-1> 스트레스 대처행동 도구의 하위 요인별 내용과 문항구성	26
<표 IV-1> 전체 연구대상의 분포도	27
<표 IV-2> U밴드를 제외한 지표별 선호 경향	28
<표 IV-3> 16가지 성격유형별 분포도	29
<표 IV-4> 기능 및 기질 유형별 분포도	30
<표 IV-5> 외향형과 내향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검증	31
<표 IV-6> 감각형과 직관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검증	33
<표 IV-7> 사고형과 감정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검증	34
<표 IV-8> 판단형과 인식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검증	36
<표 IV-9>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별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검증	37
<표 IV-10>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별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검증	40

그림 목차

[그림 II-1] MBTI 네 가지 선호경향	8
--------------------------------	---

부록 목차

<부록 1>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지	57
<부록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 검사	6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 중 최근 가장 많은 진단을 받는 병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는다. Selye(1976)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생의 일부이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경험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삶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장연집, 2001).

성인들만의 문제로 보았던 스트레스가 건강한 아이도 어른처럼 매일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며 아동기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송의열, 1995; 정원주, 1997; 민하영·유안진, 1998; 이현림·윤덕임, 1999; 여성우, 2000; 김금숙, 2001; 박진아, 2001; 추정옥, 2001). 아동기는 이전 가정이나 이웃에만 국한되었던 사회적 환경의 범위가 학교라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계속적으로 성격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이현순외 역, 1987)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들은 성적 제일주의의 학교교육 속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공부를 강요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고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과 신체적 증상으로 소아정신과를 찾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에 6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는(박진아, 2001)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경험 유무보다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홍원희(1992)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환경적 자극이나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그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객관적 자극 자체보다 자극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적 특성, 사회 환경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의 매개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홍지영, 1996, 재인용). 또한 Rahe(1974)는 스트레스 문제에 있어 성격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고, Holahan(1986)도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대처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성격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였다.

실제로 아동의 스트레스 경험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을 키울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의 박성은(1999), 여성우(2000), 조건국(2000), 김금숙(2001), 지형우(2002), 추정옥(2001) 등의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성격특성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성격의 세분화된 요소로서의 진단만을 의미하며 개인의 전체적, 실제적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동성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홍지영(1996), 조원표(1997), 김영재(1999), 정성순(1999), 송혜숙(2001)의 연구를 통해 심리적 역동성을 파악하는 MBTI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아동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를 사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J, SP,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과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과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과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 집단(ST, SF,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 집단(SJ, SP,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기는 선호경향 중 명백한 선호성이 나타나지 않는 U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므로 표집 대상을 많이 선정해도 U밴드 성향의 대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U밴드 대상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전체 아동의 성향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또한 아동의 성격유형이 일부 나타나지 않아 분석 시 연구대상 숫자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아동의 MMTIC 성격유형과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 장에서는 MMTIC과 성격유형, 스트레스 개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그리고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MMTIC과 성격유형

1) Jung의 심리유형론

Jung은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이 임상에서 경험하고 관찰했던 많은 연구들과 반대론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인간은 같은 사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보고 느끼며, 다르게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고 한다. 그는 이런 차이에 일관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식과 판단의 개인차를 그 사람의 성격유형(Personality type)이라고 표현하였다(Jung, 1971).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며, 성격유형은 고정된 틀이 아니고 일생을 통하여 환경과 자신의 역할이 역동적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발달해 간다는 것이다(김영재, 1999).

Jung은 심리유형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일반적 태도상에서 보는 외향적 태도(Extraversion)와 내향적 태도(Introversion)이고, 둘째는 정신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의 기능으로 분류했다.

Jung이 태도라 부르는 외향성(E)과 내향성(I)은 개인 정신에너지의 방향(이부영, 1998)을 말하는 것으로 외향성에서는 정신에너지가 외부세계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자기 바깥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자기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는 경향을 띤다. 반면에 내향성에서는 정신에너지가 자기 내부 세계로 향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띤다.

Jung의 유형론에서 태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기능으로서 다양한 생활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반응토록 하는 인식기능(S, N)과 판단기능(T, F)을 말한다.

인식은 사람, 사물, 사건 등을 깨닫게 되는 정보 수집, 감각, 영감의 추구 방법을 가리킨다. 감각형(S)은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의식적 경험을 포함하고, 직관형(N)은 통찰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 의미와 전체 관계를 이해하는 기능이다. 감각형과 직관형은 구체적이고 특수하며 우연적인 지각에 기초한 인식 기능으로 자신의 이성을 통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비합리적 기능이라고 한다(송혜숙, 2001).

판단은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의사결정, 평가, 선택 등의 방법을 가리킨다. 사고형(T)은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인 반면, 감정형(F)은 상대적인 가치와 문제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을 갖는다. 사고형과 감정형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성의 법칙에 따라 판단,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합리적 기능이라 한다(송혜숙, 2001).

Jung(1971)은 2가지의 태도와 4가지의 정신 기능상의 유형을 통합하여 8가지 심리유형을 표출한다고 보았는데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향적 사고형(ET)은 여러 가지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사고하는 형이다. 내향적 사고형(IT)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내면의 이념이나 관념에 따라 사고한다.

외향적 감정형(EF)은 객관적 기준이 감정 판단의 기준이 되며 자신의 감정을 주위환경에 맞추어 순응해 나가며 타인의 기분을 고려하여 맞춘다. 내향적 감정형(IF)은 자기 자신의 주관에 의해 감정 판단을 한다. 이 감정은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밖으로 표현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외향적 감각형(ES)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며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내향적 감각형(IS)이란 객관적 자극을 받은 후 자신의 내부로 받아 들여서 주관적으로 해석한 후 행동에 옮기는 형이다.

외향적 직관형(EN)은 객체가 갖는 장래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잘 파악하고 객관세계에서 실현되도록 능력을 발휘한다. 내향적 직관형(IN)은 직관기능이 내적 세계로 향하여 정신 세계의 가능성을 촉진시킨다.

인간의 선호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는 Jung의 학설은 그의 오랜 경험에 의한 것으로 인간의 다양성과 개인의 독특성을 잘 설명해주며, 대인관계의 갈등을 이해하고 정신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조원표, 1997).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이러한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Myers와 Briggs에 의해 연구 개발된 인간이해의 유용한 도구로서(김정택·심혜숙, 1993), 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 판단(Judging)과 인식(Perceiving) 기능을 첨가하여 네 가지 선호지표의 경향성으로 인간의 성격유형을 설명하였다.

MMTIC은 MBTI와 같이 Jung의 심리유형론에 근거하여 Murphy와 Meisgeier에 의해 개발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2)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의 특성

MMTIC은 인간의 성격유형을 네 가지 선호지표의 조합으로 설명하여 자신의 성격이해뿐만 아니라 타인 이해까지 도움을 주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MMTIC은 원리면에서 MBTI와 같으나 단지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현정, 1998, 재인용). 그러므로 MMTIC에서 사용하는 지표, 16개 성격유형, 기능, 기질 등의 용어는 MBTI 설명에 따른다. 다음에서는 MBTI의 선호지표, 16개 성

근차근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근면 성실한 형으로 관찰능력이 뛰어나 구체적 사실들을 잘 기억하나, 때로는 전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직관형(N)은 통찰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전체를 파악하고 본질적인 패턴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상상력과 영감에 더 큰 가치와 비중을 두어 현재에 머무르기보다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더욱 즐긴다. 그러나 때론 전체를 보기 위해 세밀한 사항을 간과한다.

사고형(T)과 감정형(F)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다. 사고형(T)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들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중시하며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객관적인 기준인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감정형(F)은 객관적인 기준보다 자신과 타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초점을 두는 인간중심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중시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일이나 사람에 대한 열정이 많은 편이다.

인간은 외부세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선호하는 생활양식으로 판단기능(J) 또는 인식기능(P)을 사용하게 된다. 판단형(J)은 질서있고 계획에 따라 실천하는 생활양식을 선호한다. 결정을 내릴 만큼의 정보를 얻었다 싶으면 재빨리 결론을 내리고 계획을 잘 수립하여 구조적 체계적으로 활동한다.

인식형(P)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정보 자체를 즐기며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고 자율적 생활양식을 선호한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으며, 모든 경험에 열려져 있고 더 많은 정보 수집을 위해 결정을 미루어 일정한 시간에 일을 마무리짓지 못할 때도 있다.

MBTI는 네 가지 선호지표들을 조합하여 16가지 성격유형을 만들었다. 각 유형은 선호경향의 방향을 가리키는 네 자의 영문자를 조합하여 16가지 성격유형을 제시하였다(김정택·심혜숙·제석봉 역, 1995).

MBTI에서 심리기능(Psychological Function)에 속하는 인식기능(S, N)과 판단기능(T, F)의 역동에 따라 각각 ST, SF, NT, NF의 4가지 심리적 기능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분류는 어떤 정신 기능의 사용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인간관계나 일처리 방식에 있어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심리적 기능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정택·심혜숙·제석봉 역, 1995). ST(감각적 사고)형은 인식할 때는 주로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는 사고를 사용한다. 사실을 감각에 의해 모으고 확인하는 것을 선호하며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논리적 절차에 따른 사고를 선호한다.

SF(감각적 감정)형은 인식할 때는 주로 감각에 의존하지만 판단할 때는 감정을 선호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개인의 주관이나 온정을 바탕으로 하며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한다. 또한 사물보다 사람에 대한 사실을 중시하며 상호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선호한다.

NT(직관적 사고)형은 인식할 때는 직관을 선호하지만 판단할 때는 사고의 객관성을 중시한다. 가능성, 이론적 관계, 추상적 양식에 초점을 두며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논리적이다.

NF(직관적 감정)형은 인식할 때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보다는 가능성있는 일이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려질 수 있는 진리에 관심이 많다. 또한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정열적이다.

기질이란 자신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과 같은 것으로(설영환 역, 1995) 사람들은 그들이 발달시키기를 원하는 어떠한 측면을 결정하는 기본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MBTI의 기질은 인식기능 S와 생활양식 J, P와 결합하여 SJ, SP를 만들고, N과 판단기능 T, F와 결합해서 NT, NF를 만든다. 이들 네 가지 기질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정택·심혜숙·임승환 역, 1993).

SJ(감각적 판단)형은 에피메테우스(Epimetheus)적인 감각적이면서도 신중한 기질로 우울한 부정적 사고를 많이 하는 우울질 유형이다. 이 유형은 가정이나 조직 사회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신중하며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고 타인의 반응이나 교사의 지시에 큰 비중을 두며, 주변 정리정돈을 잘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의무감이 강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조성환, 2002).

SP(감각적 인식)형은 디오니소스(Dionysus)적인 감각적이고 유희적이며 인생에 대한 태도가 활달하고 희망적이며 낙관적인 다혈질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자유와 독립을 중요시하며 활동 지향적이고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며, 융통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구속이나 강제없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리정돈이 어려운 과잉행동의 경향이 있다.

NT(직관적 사고)형은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적인 직관적이면서도 사고적으로 화를 잘 내는 분노를 가진 담즙질 유형이다. 이들은 능력을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을 통솔하고 통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논리적 이유를 추구하며 정서표현이 서툴다.

NF(직관적 감정)형은 아폴로(Apollo)적인 직관적이고 감정적이며 조용하고 활발하지 않은 점액질 유형이다. 이 유형은 평화와 조화를 중요시하고 개별적인 관계를 중시하며, 의사소통에 능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여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며 자아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많은 유형이다(조혜영, 2002).

MMTIC에 의한 선호지표와 기능 및 기질 유형은 MBTI와 같은 맥락을 지니며 앞 절에서 설명되었고 다만 한가지 주목할 점은 MMTIC 선호지표에 U밴드 지표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U밴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MMTIC에는 성격유형을 나타내는 4가지 선호지표(E-I/S-N/T-F/J-P) 외에 각 지표마다 아동의 선호도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결정되지 않은(Undetermined)”의 의미로서 “U” 부호를 쓰는 U밴드가 있다.

U밴드는 선호도 측정을 통해 아동의 성격유형이 선호방향의 둘 중 하

나로 귀속될 만큼 명료한 선호도를 아직 획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동의 발달시기상 선호성이 잘 분화되지 않아 나타날 수도 있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워 심리 부적응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김남규, 1999).

Murphy와 Meisgeier에 의하면 U밴드를 규정한 것은 심리유형의 발달적 현상이며 상당수의 아동은 선호성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김정택·심혜숙, 1993, 재인용). 이처럼 U밴드는 발달과정상 나타나는 특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U밴드 비율이 낮아지지만 아동의 성격유형에 U밴드가 있다는 점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격유형 연구가 갖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이주형, 2001).

MMTIC 연구 초기에는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기체나 학습양식 및 학교적응 등으로 그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정경연(1993)은 직관형(N)과 인식형(P)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보였으며, 김남규(1999)는 교과별 학업성취에서 J-P 지표와 기능, 기질별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과 학습양식을 다룬 연구에서 아동의 성격유형 중 절대다수인 외향형(E), 직관형(N), 감정형(F), 인식형(P) 아동이 반대지표에 비해 독립적, 협동적 학습양식을 갖고(최원현, 2000),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다는 결과(김윤희, 1996 ; 이주형, 2001)를 보였다. 또한 기질 및 기능 유형에서도 NF(직관적 감정)형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김윤희, 1996 ; 최원현, 2000 ; 이주형, 2001). Kelly(1991)의 정서장애, 품행장애 아동의 성격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정서장애는 내향형(I), 품행장애는 외향형(E)에서 더 많다고 한다(조혜영, 2002, 재인용).

김현숙(2000)은 성격 기질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을 연구한 결과, SJ형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SP형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조혜영, 2002, 재인용).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성격유형과 주변 요인과의 관계 외에 스트

레스와 관계하는 성격유형이 어떤 것인지 밝힌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홍지영, 1996 ; 조원표, 1997 ; 김영재, 1999 ; 정성순, 1999 ; 송혜숙,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MTIC 성격유형 중에서 개인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자주 사용하는 선호지표(E-I/S-N/T-F/J-P)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고,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의 역동에 따른 심리적 기능유형(ST, SF, NT, NF) 및 심리적 기질유형(SJ, SP, NT, NF)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스트레스의 개념과 대처행동

본 절에서는 스트레스 개념을 고찰하고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트레스 개념



스트레스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스트레스가 과용 또는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시대에 따라 그 정의가 변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현재까지 학자들의 논쟁점이 되고 있다(김정희, 1987).

스트레스는 정의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지고, 변인의 관련 양상도 달라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정의한다(Lazarus와 Folkman, 1984 ; 정원주, 1997 ; 조원표, 1997)

첫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이다.

이 정의는 생물학 또는 의학에서 사용하는 정의로서 초기 스트레스에 대한 입장이다. 대표적인 학자 Selye(1985)는 스트레스를 “어떤 것이든 그 요구에 대한 신체의 비 특이적 반응”이라 하며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자

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라 정의했다(김정희, 1987, 재인용). 즉, 유기체는 항상성(homeostasis)이라 하는 균형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항상성을 깨뜨리게 되면 유기체는 적응적 반응을 하여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가설에 입각한 것이다. Selye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해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방어세트인 ‘일반적 적응 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 GAS)’으로 설명한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려는 경계반응기(alarm reaction stage), 위협에 대해 위태양, 고혈압, 만성적 불안 같은 적당 수준 이상의 신체적 적응이 나타나는 저항기(resistance stage), 위협이 장시간 지속되어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관 체제나 과정이 붕괴되는 소진기(exhaustion stage)의 3단계를 거치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정원주, 1997).

스트레스를 이러한 신체 반응으로 정의한다면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인간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성 유지면에 늘 도전을 받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트레스 반응과 일상 생활에서의 반응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영재, 1999).

둘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이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환경적 측면에서 일상적이지 않는 반응을 요구하는 객관적 위협이나 심리적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 조건으로 보는 입장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 자체를 스트레스로 규정한다. 이 입장에서 자극의 상태에 따라 스트레스는 개인적 성장이나 만족의 기회가 되는 좋은 자극(eustress)이 되기도 하고, 실업, 사망 등 개인에게 나쁘게(distress) 작용하기도 한다(박성은, 2000). 그러나 이 관점은 스트레스 자극을 개체와 관계없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에 따라 특수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나,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개인에 따라 생활사건의 주관적 의미나 변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제한점

을 갖는다(정원주, 1997).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계론적 입장이 대두되었다.

셋째,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이다.

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환경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개인은 환경의 자극요소와 그 반응을 직접적으로 매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각, 인지, 생리적 특징 또한 환경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고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정원주, 1997).

이러한 관점에서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자라서 자신의 안녕이 위협하다고 평가 내려지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극이나 반응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각자의 대처자원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매개하는 중요한 과정인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행동을 검토함으로써 이해한다. 다시 말해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개인이 그 사건을 평가하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자원을 평가하여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 그 사건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그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된다.

조원표(1997)도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이란 있을 수 없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소유한 자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다르다고 보며 개인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말하였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상호작용으로 보는 시각은 특정사건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동일한 특정사건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송혜숙, 2001).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트레스 개념 정의는 외적 자극, 반응,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과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을 보완하여 스트레스를 어떤 상황이 개인의 안녕 유지에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평가하고 문제시된 상황을 조정하는 개인과 환경사이의 특정한 관계로서 정의하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만큼, 이에 대처하는 대처행동의 개념도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Silver와 Wortman(1980)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행하는 본능적, 반사적 행동까지를 포함한 모든 반응을 대처행동으로 정의한다(정원주, 1997, 재인용).

그에 반해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의도적, 목적적인 반응으로 한정하여 개인의 자원을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어떤 특별한 내·외적 요구를 다루려는 결과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행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Pearlin과 Schooler(1978), Moos와 Billing(1984)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이라 정의하며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따라 오히려 성장에 촉진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대처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자원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고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인이 행하는 인지 행동적 노력이라 볼 수 있으며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개념보다 대처행동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처행동은 그 기능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 각기 다르다.

Gutmann(1967)은 대처행동 유형을 투사법을 통하여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해 나가는 자아통제 방법으로 보고 능동적 대처행동, 수동적 대처행동, 신비적 대처행동으로 나누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대처행동을 문제지향적 대처행동과 정서지향적 대처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문제지향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대처하려는 노력으로, 문제직면적 대처행동과 고통스런 문제해결이 하위영역에 포함된다. 정서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 자극으로부터 발생한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분리적 대처행동, 자기조절, 사회적 지지추구, 책임완수, 회피, 긍정적 재평가적 대처행동이 하위영역으로 포함된다(홍지영, 1996 ; 박성은, 2000).

Roth와 Cohen(1986)은 스트레스 유발자극에 정보를 추구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등의 인지적·정서적 및 행동적 활동을 하는 접근적 대처와 당면 문제를 부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화풀이하는 등 스트레스 유발자극을 회피하거나 자극으로부터 멀어지는 회피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정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처행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인기와 달리 아직 발달하는 과정에 있고,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지각정도, 대처행동 자원 등이 성인과 다른 아동에게 대처행동 유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주장한 연구(Band와 Weisz, 1988 ; Compas, Malcarn와 Fondacaro, 1988)를 통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Causey와 Dubow(1992)는 Roth와 Cohen(1986)의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의 대처행동을 범주화한 결과 아동의 대처행동 가운데 성인의 회피적 대처행동 유형과 접근적 대처유형에 동시에 포함되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차원적 분류체계로는 아동의 대처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박진아, 2001, 재인용).

Band와 Weisz(1998)도 구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아동의 대처를 Lazarus와 Folkman(1984)의 문제지향적 대처와 정서지향적 대처유형과

자신들의 1차, 2차 통제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 반응의 40%가 Lazarus와 Folkman에 의해 제시한 성인 방식의 대처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동의 반응을 반영하는 새로운 범주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성인이 사용하는 이차원적 분류의 대처행동으로는 아동의 대처행동 경향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다양한 대처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이차원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박진아, 2001).

Ryan-Wenger(1992)는 아동의 대처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위해 Folkman과 Lazarus(1984)의 대처행동 정의에 근거를 두고 1981년에서 1989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서구의 16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15개 하위영역의 대처행동을 분류하였다. Ryan-Wenger(1992)에 의한 아동의 대처행동 유형은 공격적 활동, 행동적 회피, 행동적 기분전환, 인지적 회피, 인지적 방심, 인지적 문제해결, 인지적 재구조화, 감정표현, 인내, 정보추구, 독립활동, 자아통제활동, 사회적 지지, 영적 지지, 스트레스 요인수정인 15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정원주·윤종희, 1997, 재인용).

또한 Ayers(1991)는 9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의 대처행동을 연구한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하위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 대처행동, 스트레스 사건에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없는 별개의 활동에 참여하는 관심 전환적 대처행동,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회피적 대처행동, 그리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을 타인에게서 찾는 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구분하였다(Ayers, 1991 ; 박진아, 2001, 재인용).

한편 국내에서도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개발하는 연구(송의열, 1995 ; 정원주·윤종희, 1997 ; 민하영·유안진, 1998)들이 진행되면

서 다원적 대처행동의 범주로 접근하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가 개발되었다.

정원주와 윤종희(1997)는 Ryan-Wenger(1992)의 15가지 대처행동 유형을 근거로 초등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재평가, 감정적 공격, 문제 직면적 행동, 문제 해결적 정보추구, 기분 전환적 행동, 회피, 영적 지지, 감정 완화적 분리, 감정표현 등 9가지 대처행동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민하영과 유안진(1998)은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연구한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5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하위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인 적극적 대처행동,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보다 문제로부터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극적 대처행동,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적 대처행동, 스트레스 문제를 유보, 부정, 체념, 수용하거나 또는 문제 자체를 생각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문제의 직접 해결을 회피하려는 회피적 대처행동, 문제해결이나 정서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구성된다. 요인간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적극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함께 할 가능성이 있고,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으로 범주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힘에 있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민하영·유안진(1998)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박진아(2001)의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4가지 하위유형으로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살펴보았다.

각 하위영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문제에 의해 발생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 조절하거나 또는 문제를 유보·수정하고 문제해결을 거부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공격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하기 위한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3.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역동적 관계로 보는 관계론적 입장에서는 인간을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존재(Lazarus와 Folkman, 1984)로 보고 개인의 성격특성이 스트레스의 평가와 대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서는 성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그리고 MBTI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성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건국(2000), 여성우(2000)는 성격 특성 중 외향성과 허위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우(2000)는 불안, 걱정과 관련있는 정서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수동적, 신비적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했으며, 박성은(2000), 김정원·신은영(2001)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분석한 결과 회피적 대처방식의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사려성, 불신감, 책임성, 우월성, 공격성 등의 성격적 요인들이 회피적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냈다. 또한 지형우(2001)는 아동들의 대처양식 연구 결과 성별, 학년별, 운동선호별 요인과 상관없이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극적 대처>소극적 대처>신비적 대처양식간의 유의한 차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금숙(2001), 추정옥(2001)은 아동이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 수동적 대처 등 비효율적 대처를 하고 있음을 밝혀 지형우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민하영·유안진(1998)은 우울성향이 낮은 내적 통제 소재의 아동은 적극적이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우울성향이 높고 외적인 통제 소재의 아동일수록 소극적,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한다고 하며 아동의 심리 사회적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혔다.

정양은(1982)은 스트레스 강도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객관적 자극 자체 보다는 그 자극을 받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Rahe(1974)도 스트레스 문제에 있어서 성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격 형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향적이고 허위성이 높으며 우울성향이 낮은 집단은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스트레스에 대해 우울, 불안 수준이 높고 정서성이 높은 집단은 수동적, 회피적, 소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성격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성격의 세분화된 요소들만을 진단한 것으로 한 개인의 전체적, 실제적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동성을 고려하지는 않았다(홍지영, 1996).

심리적 경향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MBTI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원표(1997)는 MBTI 네 가지 선호경향 중 유일하게 외향(E)과 내향(I)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밝혔다. 즉 내향형(I)은 소망에 의한 사고활동, 자기 비난과 같

은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홍지영(1996)은 성격 유형의 외향(E)과 내향(I)의 지표와 판단(J)과 인식(P)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외향형이 문제직면적이고, 고통스런 문제해결을 하는 문제지향적 대처양식과 분리적 행동, 사회적지지 추구, 긍정적 재평가 영역인 정서지향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함을 밝혔다. 그리고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 판단(J)과 인식(P) 지표에서는 인식형이 고통스런 문제해결, 긍정적 재평가 영역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며 회피영역에서는 판단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고등학생의 성격유형, 스트레스 수준,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밝힌 송혜숙(2001)의 연구에서는 성격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많이 하고, 사고형(T)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인식형(P)은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정성순(1999)의 연구에서는 외향형(E)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관형(N)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 사고형(T)은 문제중심적 대처를 감정형(F)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인식형(P)이 소망적 사고 대처,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영재(1999)의 연구에서 외향형(E)은 환경관계에서, 직관형(N)은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사회적지지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판단형(J)이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대상에 따라 각 연구마다 유의한 차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외향형(E)일수록 사회적지지 대처를 많이 하며, 인식형(P)은 판단형(J)

에 비해 정서적, 소극적 대처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성인기와는 달리 발달하는 과정에 처해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별로 없다. 오늘날 스트레스 시대라 부를 만큼 건강한 아동도 매일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MMTIC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측정 도구, 자료 처리 순으로 연구방법을 살펴보겠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57명(남 247명, 여 210명)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8명과 네 가지 선호경향 중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U밴드 아동 266명을 제외한 183명(남 95명, 여 88명)을 선택하였다. 또한 조사기간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MMTIC,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 검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MTIC(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MMTIC은 MBTI와 같이 Jung의 심리유형론에 근거를 두고 1990년 개발된 것으로, 한국에서는 김정택·심혜숙(1993)에 의해 초등학교 2학년부 터 중학교 2학년까지(만 8세에서 만 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검사-재검사에 의한 신뢰도는 E-I 척도 .76 / S-N 척도 .65 / T-F 척도 .63 / J-P 척도 .63

이며 어린이용 성격진단 검사(중양적성출판사)간의 구성타당도는 .58 ($p < .001$)로 검증되었다. 검사의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r = .67$ 로 나타났다.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MMTIC 문항의 읽기 수준은 3학년에서 6학년에게 가장 적절하며 중학교 1, 2학년에게는 다소 쉬운 편이다. 평균 검사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이며 MMTIC 사용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하에 사용될 수 있다. 채점방식은 손 채점과 컴퓨터 채점 모두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손 채점을 사용하였다.

2)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 검사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88)이 개발하고 박진아(2001)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 검사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라는 4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4개 영역에 따른 내용과 문항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항상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적극적 대처행동 .87,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64, 공격적 대처행동 .85,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78이었고, 전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1이었다.

<표 III-1> 스트레스 대처행동 도구의 하위 요인별 내용과 문항 구성

하위요인	내용	문항 번호
적극적 대처행동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	1, 5, 9, 13, 17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문제에 의해 발생된 부정적 감정을 완 화, 조절하거나 또는 문제를 유보 수정하 고 문제해결을 거부함으로써 문제에 직면 하지 않으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	2, 6, 10, 14, 18
공격적 대처행동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언 어적 공격을 하기 위한 인지 행동적 반응	3, 7, 11, 15, 19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	4, 8, 12, 16, 20

3. 자료 처리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분석은 t검증, 심리적 기능 및 기질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분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F검증, 또한 기능 및 기질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전체 연구대상의 네 가지 지표별 선호경향 분포와 16가지 성격유형 분포, 네 가지 기능 및 기질별 분포를 제시한 후 각 가설을 검증하였다.

1. 기본 통계치

여기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의 분포도를 U밴드를 포함한 네 가지 지표별 선호경향과 U밴드를 제외한 각 지표별 선호경향, 16가지 성격유형 분포, 기능 및 기질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표 IV-1> 전체 연구대상의 분포도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표	빈도(명)	백분율(%)
E	292	63.9
I	85	18.6
U	80	17.5
S	157	34.4
N	160	35.0
U	140	30.6
T	68	14.9
F	316	69.1
U	73	16.0
J	38	8.3
P	344	75.3
U	75	16.4
총계	457	100.0

위의 <표 I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U밴드의 비율은 E-I 지표에서는 17.5%, S-N 지표에서는 30.6%, T-F 지표에서는 16.0%, J-P 지표에서는 16.4%로 나타났다. 한편 MMTIC 한국판 표준화 연구(김정택·심혜숙, 1993)에서의 U밴드 비율은 E-I 지표에서는 21.1%, S-N 지표에서는 24.8%, T-F 지표에서 17.7%, J-P 지표에서는 19.0%로 나타났다.

전체 표집 457명 중에서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된 표집은 각 지표에서 U밴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네 가지 선호성 지표가 뚜렷이 나타난 183명이며, 지표별 선호경향 분포도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U밴드를 제외한 지표별 선호 경향

지표	빈도(명)	백분율(%)
E	144	78.7
I	39	21.3
S	83	45.4
N	100	54.6
T	28	15.3
F	155	84.7
J	17	9.3
P	166	90.7
총계	183	100.0

위의 <표 IV-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I 지표에서는 외향성이 78.7%로 MMTIC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서 나타난 외향성(67.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S-N 지표에서는 직관형이 54.6%로 한국판 표준화에 나타난 직관형(53.4%)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T-F 지표에서 감정형의 비율이 84.7%로 MMTIC 한국판 표준화 연구와 비슷한 결과(감정형

86.5%)를 보였다. J-P 지표에서는 인식형의 비율이 90.7%로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인식형(82.0%)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U밴드를 제외한 183명의 16가지 성격유형별 분포도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16가지 성격유형별 분포도

(%)는 183명에 대한 비율임.

ISTJ n=1 (0.55)	ISFJ n=2 (1.1)	INFJ n=1 (0.55)	INTJ n=0 (0)
ISTP n=8 (4.4)	ISFP n=9 (4.9)	INFP n=13 (7.1)	INTP n=5 (2.7)
ESTP n=6 (3.3)	ESFP n=45 (24.6)	ENFP n=73 (39.9)	ENTP n=7 (3.8)
ESTJ n=1 (0.55)	ESFJ n=11 (6.0)	ENFJ n=1 (0.55)	ENTJ n=0 (0)

<표 IV-3>에 의하면 아동의 성격유형을 나타내는 반응은 ENFP가 39.9%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 ESFP(24.6%), INFP(7.1%), ESFJ(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MMTIC 한국판 표준화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ENFP(33.9%), ESFP(18.8%), INFP(14.3%)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연구 대상에서는 INTJ와 ENTJ의 성격유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MMTIC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서도 INTJ(0.5%)와 ENTJ(0.5%) 성격유형이 적게 나타났다.

<표 IV-4> 기능 및 기질 유형별 분포도

구분	기능·기질유형	빈도(명)	백분율(%)
심리적 기능유형	ST	16	8.7
	SF	67	36.6
	NT	12	6.6
	NF	88	48.1
심리적 기질유형	SJ	15	8.2
	SP	68	37.1
	NT	12	6.6
	NF	88	48.1

<표 IV-4>에서 아동의 기능 및 기질 유형의 분포를 보면 기능 유형의 분포에서 SF형, NF형 아동이 ST형과 NT형 보다 아주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사고형(T)보다는 감정형(F)을 많이 선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능별 분포로는 NF(88명), SF(67명), ST(16명), NT(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질별 분포로는 NF(88명), SP(68명), SJ(15명), NT(12명) 순으로 NF형과 SP형이 SJ형과 NT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가설에 기초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과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5> 외향형과 내향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t
적극적 대처행동	외향	144	14.36	3.17	2.61 *
	내향	39	12.51	4.10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외향	144	11.70	3.11	-1.64
	내향	39	12.62	2.99	
공격적 대처행동	외향	144	12.28	3.36	1.03
	내향	39	11.64	3.88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외향	144	10.48	2.92	3.93 **
	내향	39	8.46	2.51	

(* : $p < .05$, ** : $p < .01$)

위의 <표 IV-5>를 보면 외향형 집단과 내향형 집단간에 적극적 대처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61$, $p < .05$). 이는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에 있는 외향형 집단($M=14.36$)이 내향형 집단($M=12.51$)보다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에서는 외향형 집단과

내향형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외향형 집단과 내향형 집단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3.93$), 외향형 집단($M=10.48$)이 내향형 집단($M=8.46$)보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외향형 집단의 아동이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활동적 태도로서 가까운 사람을 만나 솔직하게 말하며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도움, 지지를 추구하는 등 내향형에 비해 적극적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Davis와 Phares(1967), 홍지영(1996), 김영재(1999), 송혜숙(2001)의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를 찾고자 노력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이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보다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과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6>를 보면 감각형 집단과 직관형 집단간에 적극적 대처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7$, $p < .05$). 새로운 가능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일에 적극성을 보이는 직관형 집단($M=14.49$)이 현실적인 감각형 집단($M=13.34$)보다 스트레스에 더욱 적극적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성순(1999)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로 직관형이 감각형보다 적극적인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결과를 확인시켜준다.

<표 IV-6> 감각형과 직관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t
적극적 대처행동	감각	83	13.34	3.66	-2.27 *
	직관	100	14.49	3.2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감각	83	11.49	3.12	-1.60
	직관	100	12.23	3.06	
공격적 대처행동	감각	83	11.72	3.44	-1.51
	직관	100	12.50	3.48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감각	83	9.53	2.86	-2.19 *
	직관	100	10.48	2.97	

(* : $p < .05$)

그러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에서는 감각형 집단과 직관형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감각형 집단과 직관형 집단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 = -2.19$), 직관형 집단($M = 10.48$)은 감각형 집단($M = 9.53$)보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홍지영, 1996 ; 조원표, 1997 ; 송혜숙, 2001)의 감각형과 직관형 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성순(1999)의 직관형이 감각형보다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와 김영재(1999)의 직관형은 사회적지지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

이렇듯 직관형 집단(N)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감각형 집단(S)보다 통찰을 통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 태도로 스트레스에 보다 적극적 대처행동을 보이며 주변인들로부터 도움을 스스로 이끄는 사

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이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보다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과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7> 사고형과 감정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t
적극적 대처행동	사고	28	12.75	4.15	-2.04 *
	감정	155	14.19	3.29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고	28	11.61	2.73	-.53
	감정	155	11.95	3.17	
공격적 대처행동	사고	28	13.68	3.44	2.57 *
	감정	155	11.87	3.42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사고	28	8.25	2.61	-3.62 **
	감정	155	10.37	2.90	

(* : $p < .05$, ** : $p < .01$)

위의 <표 IV-7>를 보면 사고형 집단과 감정형 집단간에 적극적 대처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04$, $p < .05$). 감정형 집단($M = 14.19$)이 사고형 집단($M = 12.75$)보다 스트레스에 더욱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에서는 사고형 집단과 감정형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격적 대처행동은 사고형 집단과 감정형 집단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t=2.57$)를 보이는데 사고형 집단($M=13.68$)이 감정형 집단($M=11.87$)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객관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보를 분석, 비교하는 사고형은 스트레스에 논리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사고형 집단과 감정형 집단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62$). 즉, 감정형 집단은($M=10.37$)은 사고형 집단($M=8.25$)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성순(1999)이 밝힌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감정형(F)이 사회적 지지의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8>를 보면 판단형(J) 집단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인식형(P)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성순, 1999)와 일치한 결과이다.

<표 IV-8> 판단형과 인식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t
적극적 대처행동	판단	17	14.76	3.27	1.00
	인식	166	13.89	3.48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판단	17	11.76	3.47	-.18
	인식	166	11.91	3.07	
공격적 대처행동	판단	17	10.71	3.53	-1.81
	인식	166	12.30	3.45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판단	17	10.47	2.79	.62
	인식	166	10.01	2.97	

한편, 인식형 집단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에서 판단형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성순(1999), 송혜숙(2001)이 밝힌 인식형(P)이 스트레스 대처에서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의의있게 뒷받침하지는 못했다. 이는 연구대상인 아동의 성격유형 분포 경향이 성인과는 달리 인식형 집단(90.7%)에 편중되어 판단형의 통계적 수치가 작게 나와 의의 있는 결과를 내리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을 거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 집단(ST, SF,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9>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별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검증

구 분		N	M	SD	F	Scheffe	
						1	2
적극적 대처행동	ST	16	11.00	4.05	5.15 **	*	
	SF	67	13.90	3.36			*
	NT	12	15.08	3.09			*
	NF	88	14.41	3.24			*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ST	16	12.25	2.70	2.33		
	SF	67	11.31	3.21			
	NT	12	10.75	2.63			
	NF	88	12.43	3.07			
공격적 대처행동	ST	16	12.38	2.87	4.43 **	*	
	SF	67	11.57	3.57		*	
	NT	12	15.42	3.48			*
	NF	88	12.10	3.30		*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ST	16	8.13	2.68	5.69 **	*	
	SF	67	9.87	2.82		*	*
	NT	12	8.42	2.61		*	*
	NF	88	10.76	2.92			*

(** : p<.01)

위의 <표 IV-9>를 보면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 집단별로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5). NT형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M=15.08) 다음은 NF형(M=14.41), SF형(M=13.90), ST형(M=11.00) 순으로 갈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행동에 대하여 기능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ST와 SF, NT, NF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NT, NF, SF형은 동질집단으로서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ST형은 스트레스에 적극적 대처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적 대처행동의 경우는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43$). NT형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M=15.42$), 다음은 ST형($M=12.38$), NF형($M=12.10$), SF형($M=11.57$) 순으로 갈수록 공격적인 대처행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하여 기능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NT와 ST, SF, NF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NT형이 직관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ST, NF, SF형은 동질집단으로 공격적 대처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또한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69$). NF형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M=10.76$), SF형($M=9.87$), NT형($M=8.42$), ST형($M=8.13$)으로 갈수록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 대하여 기능간의 차이를 Scheffe 검증한 결과 ST와 NF만이 이질집단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따뜻한 온정을 갖고 가능성을 추구하는 NF형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 ST형은 가장 적게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 협조적, 우호적 태도의 NF, SF형이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원표(1997)의 연구에서는 기능유형과 관련된 행동기술이 잘 발달되어 기능유형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밝힌 김영재(1999)는 ST > NF > SF > NT 순으로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는 발달적 측면에 있는 아동의 성격유형(NF)이 청소년, 성인(ST)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성격유형의 네 가지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 집단(SJ, SP,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IV-10>를 보면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 집단별로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12$). NT형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M=15.08$) 다음은 SJ형($M=14.81$), NF형($M=14.41$), SP형($M=12.99$) 순으로 갈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행동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다혈질적인 SP형이 스트레스 해결에 적극적 대처행동이 가장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적 대처행동의 경우는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55$). NT형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M=15.42$), NF형($M=12.10$), SP형($M=11.91$), SJ형($M=10.94$)으로 갈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하여 기질간의 차이를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NT와 SJ, SP, NF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NT형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SJ, SP, NF형은 동질집단으로서 공격적 대처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별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검증

구 분		N	M	SD	F	Scheffe	
						1	2
적극적 대처행동	SJ	15	14.81	3.33	3.12 **		
	SP	68	12.99	3.67			
	NT	12	15.08	3.09			
	NF	88	14.41	3.24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SJ	15	11.44	3.69	1.92		
	SP	68	11.51	3.00			
	NT	12	10.75	2.63			
	NF	88	12.43	3.07			
공격적 대처행동	SJ	15	10.94	3.73	4.55 **	*	
	SP	68	11.91	3.37		*	
	NT	12	15.42	3.48			*
	NF	88	12.10	3.30		*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SJ	15	10.44	2.87	4.68 **		
	SP	68	9.31	2.84			
	NT	12	8.42	2.61			
	NF	88	10.76	2.92			

(** : p<.01)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또한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별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68). NF형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M=10.76), SJ형(M=10.44), SP형(M=9.31), NT형(M=8.42)으로 갈수록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김윤희, 1996 ; 이주형, 2001) NF형이 SP, NT에 비해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격유형의 네 가지 심리적 기질 유형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에 따른 아동들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ST, SF,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SJ, SP,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외향성향(E)을 지닌 집단과 내향성향(I)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감각성향(S)을 지닌 집단과 직관성향(N)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사고성향(T)을 지닌 집단과 감정성향(F)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 집단(ST, SF,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 집단(SJ, SP, NT, NF)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주시내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57명(남 247명, 여 210명)을 연구대상으로 아동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MMTIC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연구를 위해 민하영·유안진(1988)이 개발하고, 박진아(2001)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4개 요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네 가지 선호지표 중 명백한 선호성을 나타내지 않는 U밴드를 제외한 183명의 자료를 SPSS/PC⁺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분석은 t검증을, 심리적 기능 및 기질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분석은 F검증을, 기능 및 기질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선호지표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보였다. 외향성향(M=14.36) 집단과 내향성향(M=12.51) 집단간에는 적극적 대처행동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외향성향(M=10.48) 집단과 내향성향(M=8.46) 집단간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감각성향(M=13.34) 집단과 직관성향(M=14.49) 집단간에 적극적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감각성향(M=9.53) 집단과 직관성향(M=10.48)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사고성향(M=12.75) 집단과 감정성향(M=14.19) 집단간에 적극적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고, 공격적 대처행동에서는 사고성향(M=13.68) 집단과 감정성향(M=11.87)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사고성향(M=8.25) 집단과 감정성향(M=10.37)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P<.01)를 보였다.

판단성향(J)을 지닌 집단과 인식성향(P)을 지닌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을 거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성격유형의 네 가지 선호지표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내향형(I)보다 외향형(E)이, 감각형(S)보다 직관형(N)이, 사고형(T)보다 감정형(F)이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사고형(T)은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네 가지 선호지표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15$). 유형간에는 NT형(M=15.08), NF형(M=14.41), SF형(M=13.90), ST형(M=11.00) 순으로 갈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적극적 대처행동에 대한 기능간의 차이 검증 결과 ST형이 스트레스에 적극적 대처행동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적 대처행동의 경우는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43$). 유형간에는 NT형(M=15.42), ST형

(M=12.38), NF형(M=12.10), SF형(M=11.57) 순으로 갈수록 공격적인 대처 행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능간의 차이 검증 결과 직관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NT형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또한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능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69$). 유형간에는 NF형(M=10.76), SF형(M=9.87), NT형(M=8.42), ST형(M=8.13) 순으로 갈수록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능간의 차이 검증 결과 NF형이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 ST형이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행동의 경우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12$). 유형간에는 NT형(M=15.08), SJ형(M=14.81), NF형(M=14.41), SP형(M=12.99) 순으로 갈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행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격적 대처행동의 경우는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4.55$), 유형간에는 NT형(M=15.42), NF형(M=12.10), SP형(M=11.91), SJ형(M=10.94) 순으로 갈수록 공격적인 대처행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한 기질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NT형이 스트레스에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성격유형의 네 가지 기질별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68$). 유형간에는 NF형(M=10.76), SJ형(M=10.44), SP형(M=9.31), NT형(M=8.42) 순으로 갈수록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해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격유형 중 외향형(E), 직관형(N), 감정형(F) 아동은 내향형(I), 감각형(S), 사고형(T)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에 적극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 또한 사고형(T) 아동은 스트레스에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판단형(J)과 인식형(P)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차이가 없다.

둘째, 아동의 성격유형 네 가지 기능에 따라 NT형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NF형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 한편, ST형은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다른 기능에 비해 가장 적게 사용한다.

셋째, 아동의 성격유형 네 가지 기질에 따라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갖으며 특히, NT형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아동의 MMTIC 성격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며 아동은 스트레스에 적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3. 제 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가지는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나 기질 및 기능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다르고 그것은 나아가 성장 후인 성인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스트

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행동을 수정, 보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MMTIC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추후 검증 연구들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U밴드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U밴드를 갖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는데 아동기의 특성상 U밴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연구할 방법이 추후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넷째,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검사는 질문지법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피검사자의 의도성 답변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관찰과 면접을 통한 포괄적 측정이 있으면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금숙(200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남규(1999). **MMTIC 성격유형과 교과별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재(1999). **교사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법**.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희(1996). **MMTIC에 의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원 · 신은영(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성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 제17집**. 경희대학교부설 교육문제연구소. 55-69.
- 김정택 · 심혜숙(1993). **MBTI 안내서**.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_____ (1993).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MTIC) 안내서**.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 심혜숙 · 임승환 역(1993).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 심혜숙 · 제석봉 역(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정희 역(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 대광문화사.
- 김현정(1998). **MMTIC 성장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중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하영·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 19(2). 77-96.
- _____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 36(7). 83-96.
- _____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학회지** : 20(1). 61-77.
- 설영환 역(1995). **융심리학 해설**. 서울 : 선영사.
- 송의열(199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송혜숙(2001). **고등학생의 성격유형, 스트레스 수준, 대처방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박성은(2000). **성격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간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윤종희·정원주(1997).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15(3). 95-106.
- _____ (1997).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문헌 고찰. **동덕여대 논총** : 27. 동덕여자대학교. 239-260.
- 여성우(2000). **아동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부영 저(1998). **분석심리학 : C.G.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 일조각.
- 이주형(2001). **MMTIC을 통해 평가한 아동의 성격유형과 우울 및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림·윤덕임(1999).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대처양식 분석. **한국교육** : 26(2). 한국교육개발원. 169-191.
- 이현순외 역(1987).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의 아이들**. 서울 : 창지사.

- 장연집(2001). **아동기의 스트레스**. 서울 : 다음세대.
- 정성순(1999).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정양은(1982). **일반심리학**. 서울 : 범문사.
- 정원주(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조건국(2000). **초등학교 아동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유형 및 대처양식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성환(2002). **성격 : MBTI와 Jung 심리학**. 서울 : 한림미디어.
- 조원표(1997). **고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조혜영(2002).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우정의 질 및 교사 친밀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지형우(2002).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 : 경기북부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 최원현(2000). **MMTIC에 의한 초등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습양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추정옥(200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지영(1996). **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Ayers, T. S.(1991).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sment of children's coping : Testing alternative theoretical models.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 Tempe, Arizona.
- Band, E. B., & Weisz,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247-253.
- Brenner, A.(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Massachusetts : D. C. Health and Company Lexington.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L.(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Davis, W. L. & Phares, E. J.(1967). Internal-External as a Determinant of Inform-seeking in a Social Influence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47-561.
- Gutmann, D. L.(1967). Aging among the Highland Maya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28-35.
- Holahan, C. J.(1986).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389-395.
- Jung, C. G.(1971). *Psychological Types*. (H. G. Baynes, Trans. : Rev. R. F. C. Hull) Princeton. NJ : Princeton Univ.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1)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 Publishing. Co.
- Moos & Billings. (1984). Coping, Stress & Social Resource among Adult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46, 877-891.

- Pearlin, L. 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ahe, R. H. (1974) The pathway between subject's recent life changes and their near future illness : Representative results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B. S. Dohrenwend, & B. P. Dohrenwend(Eds.), *Stressful life Events : Their Nature and Effects*. 73-86 New York : John Wiley & Sons.
- Roth, S., & Cohen, L. J.(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Ryan-Wenger, N. M. (1992). A taxo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egics : A step toward theor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 62(2), April, 256-263.
- Selye, H.(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 McGraw-Hill Co.
- Selye, H.(1982).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J, Goldberger & S. Brenitz(Ed), *Handbook of stress :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 The Free Press.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Children's MMTIC
Character
and their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Boo, Sun Hee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 Soo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children's character according to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MMTIC) and their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up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In what relationship are the four preference indicators (E-I, S-N, T-F, J-P) of character type with children's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2. In what relationship are the four functions (ST, SF, NT, NF) of character type with children's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 The present thesis was submitted in August 2003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Cheju National University for a master's degree in Education.

3. In what relationship are the four dispositions (SJ, SP, NT, NF) of character type with children's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For this study, the present researcher performed MMTIC test on 457 fifth- and sixth-year students of four elementary schools to investigate their type of character and selected 183 of them (97 male and 86 female students) whose four preference indicators are distinctive.

In addi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children's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in terms of four factors, which are active behavior, passive/eva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and social-support-oriented behavior, using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Min Ha-yeong & Yu An-jin (1988) and modified and adapted by Park Jin-a (2001).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PC+. T-test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erence indicators of character type and children's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F-tes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unctions, disposition types and children's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and Scheffe's test to determine differences between functions and between dispositions.

From the process presented abov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compare to children of introvert (I), sensing (S) and thinking (T) character, those of extrovert (E), intuition (N) and feeling (F)

character do more active and social-support-oriented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Children of thinking (T) character do a lot of aggressive behaviors against stress. However, no difference was found in behaviors to cope with stress between children of judgmental and perceptive character.

Second, according to the four functions of children's character type, NT typed children tend to behave aggressively while NF typed children tend to pursue social support. On the other hand, ST typed children do least active and social-support-oriented behaviors compared to children of the other types of character.

Thir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ctive, aggressive and social-support-oriented behaviors according to the four dispositions of children's character type. In particular, aggressive behaviors were most frequent in NT typed children.

Putting these conclusions together, children behave differently to cope with stress according to their MMTIC character type, and they are coping with stress effectively through active, aggressive and social-support-oriented behavi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of children in order to identify children's character types properly in terms of development and help them to cope with stress effectively.

부 록

<부록 1>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지

<부록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 검사

<부록 1>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 검사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관계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슷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기 원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기 원하는 대로 답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의 답만을 골라 준비되어 있는 답안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답 모두 여러분과 비슷하다면 이 중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부 선 회 드림

제 1 부

-
1. 나는 새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 ㉠ 재미있다.
 - ㉡ 어렵다.
2. 어떤 특별활동반에 들어갔을 때, 나는
- ㉠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신난다.
 - ㉡ 그 반에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까 걱정된다.
-
3.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나는 우리편이 게임을 잘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나는 우리편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장난감, 라디오, 컴퓨터 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뜯어서 알아보는 일
 - ㉡ 금붕어나 강아지를 돌보는 일
-
5. 나는 친구들에게?
- ㉠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것에 대해 얘기하길 좋아한다.
 - ㉡ 내가 상상으로 생각한 것을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6.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나요?
- ㉠ 실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 ㉡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들
-
7. 새학년이 되어서 반이 바뀌었을 때, 나는?
- ㉠ 누구한테든 내가 먼저 말을 건넨다.
 - ㉡ 누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때까지 기다린다.
8. 나는?
- ㉠ 많은 친구들을 원한다.
 - ㉡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원한다.
-
9. 나에게 더 재미있는 일은?
- ㉠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 ㉡ 나 혼자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10.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 ㉠ 불공평한 것
 - ㉡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
11.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 내가 틀리지 않고 맞을 때
 - ㉡ 내가 친구를 기쁘게 해줄 때
12. 나는?
- ㉠ 공평한 사람이 되고 싶다.
 - ㉡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

13. 나는?

- ㉠ 내가 할 줄 아는 놀이를 하고 노는 것이 좋다.
- ㉡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서 노는 것이 좋다.

14. 나는 게임이나 공작을 할 때?

- ㉠ 전에 배웠던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
- ㉡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해볼 때 더 재미있다.

15.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학생들에게 무엇을 공부해야한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 ㉡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16. 나는?

- ㉠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곧바로 아는 편이다.
- ㉡ 곧바로 알기보다 어떻게 해볼까 나의 상상을 먼저 사용하는 편이다.

17. 어느 것을 더 싫어하나요?

- ㉠ 무슨 일이 있어났으나 이유를 모를 때
- ㉡ 친구가 화난 말투로 나를 대할 때

18. 도둑질하는 학생에 대해 나는?

- ㉠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 ㉠ 나를 위해서 이미 결정된 일을 좋아한다.
- ㉡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20. 나는?

- ㉠ 내가 해야할 일을 먼저 하고 논다.
-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재미있게 놀고 난 후에 해도 괜찮다.

21. 만약 우리반에 담임 선생님 대신으로 온 새 선생님께서, 오늘 시간표를 누가 좀 설명해 주길 바란다면?

- ㉠ 내가 해 드릴 수 있으면 기쁘겠다.
- ㉡ 나 말고 다른 친구가 말씀드려 주었으면 좋겠다.

22. 경주로 여행하려고 할 때

- ㉠ 나는 경주에 대해 주로 많이 생각한다.
- ㉡ 나는 경주 외에도 이곳저곳 여러곳을 상상하고 생각해본다.

23. 나는 선생님들이?

- ㉠ 수업 계획에 따라 수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 조금씩 바꾸어서 수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4. 어느 쪽이 더 재미있나요?

- ㉠ 친구들과 함께 무엇인가 하는 일
 - ㉡ 내가 좋아하는 일을 혼자 하는 것
-

25.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 ㉠ 똑바로 곧은 선
- ㉡ 둥글둥글한 원

26. 나에게 어느 일이 더 쉬운가요?

- ㉠ 가족 한사람 한사람의 생일 날짜를 말하는 것
- ㉡ 생일 카드를 그리는 것

27. 학교에서 내어 주는 숙제는?

- ㉠ 하기 쉽게 잘 짜여진 숙제를 나는 좋아한다.
- ㉡ 새롭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숙제를 나는 좋아한다.

28. 가장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데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나요?

- ㉠ 무엇을 보면서 생각할 때
- ㉡ 무엇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생각할 때

29.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 ㉠ 친구에게 공평한 것
- ㉡ 친구에게 친절할 것

30. 독서할 때 나는?

- ㉠ 내가 좋아하는 책 읽은 것을 또 읽는다.
- ㉡ 새로운 다른 책을 읽는다.

31. 나는?

- ㉠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길 좋아한다.
- ㉡ 친한 친구들에게만 얘기하길 좋아한다.

32. 달리기해서 이겼을 때, 나는?

- ㉠ 기분이 아주 좋다.
- ㉡ 기분은 좋는데 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33.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하나요?

- ㉠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 지 알려주는 선생님
- ㉡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선생님

34.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5. 선생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

제 2 부

36. 한 친구가 너무 느려서 여러분의 운동팀에 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 ㉠ 그 친구에게 느려서 끼워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준다.
 - ㉡ 다른 이유를 말해 주면서 우리 팀에게 끼워줄 수 없다고 말해준다.
-

-
37. 이야기를 만들어 낼 때 좋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나요?
 ㉠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얻는다.
 ㉡ 상상을 해보면 얻어진다.
38. 둘 중 어느 것이 더 재미있나요?
 ㉠ 산수 문제를 푸는 일
 ㉡ 친구에게 책 읽기를 도와주는 일
-
39. 우리편이 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 다음 번에 이기도록 계획을 짠다.
 ㉡ 먼저 우리편 사람들의 기분을 돌구도록 노력한다.
40.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어야 한다.
 ㉡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도록 맡겨야 한다.
-
41. 갑자기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나는?
 ㉠ 하던 일을 잘 못한다.
 ㉡ 어려워도 더 재미있게 일한다.
42. 나는?
 ㉠ 어떤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움직이는지 알아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생각해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
43.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그려진 그림에 색칠하기
 ㉡ 이야기 지어내기
44. 그림 조각(퍼즐) 맞추기 할 때
 ㉠ 한쪽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맞추어 갈 때 더 잘한다.
 ㉡ 그림의 여기 저기를 맞추어 보면서 들어갈 때 더 잘한다.
-
45.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 내 기분을 마음 속에 간직한다.
46.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은?
 ㉠ 신난다.
 ㉡ 처음에 어색하다.
-
47. 어느 것을 더 좋아하나요?
 ㉠ 짜여진 계획을 실천하는 일
 ㉡ 새로운 계획을 짜는 일
48. 사람들은?
 ㉠ 질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신들이 선택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49. 게임 할 때 규칙은?

- ㉠ 바뀌어서는 안된다.
- ㉡ 필요할 때 바뀌어야 한다.

50.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실제 일어난 일
 - ㉡ 일어날 뻔한 일
-

51. 나는?

- ㉠ 특별한 일은 미리 짜두는 것이 더 좋다.
- ㉡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더 좋다.

52. 학교과제를 할 때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
 - ㉡ 혼자하는 것
-

53.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
- ㉡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54. 나는?

- ㉠ 사람들은 규칙을 알 때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 ㉡ 사람들을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

55. 내가 자전거를 탈 때는?

- ㉠ 어디로 갈 지 미리 생각하고 탄다.
- ㉡ 그냥 주위를 휩 돌아온다.

56.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모였을 때 어떻게 하나요?

- ㉠ 그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얘기도 나눈다.
 - ㉡ 그 친구들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도록 기다린다.
-

57.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내가 정리정돈을 하는 깨끗한 방
- ㉡ 내가 마음대로 흩어놓을 수 있는 방

58.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어른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일을 해나가는 일
 - ㉡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는 일
-

59. 공부할 때?

- ㉠ 친구들과 함께 하길 좋아한다.
- ㉡ 혼자서 하면 더 잘 된다.

60. 어느 쪽을 더 원하나요?

- ㉠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 ㉡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해 보는 일
-

61. 일을 할 때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사람들을 모으고 일을 시키는 일
- ㉡ 사람들이 재미있게 일하도록 도우는 일

62. 나는?

- ㉠ 사람들은 먼저 일하고 놀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먼저 놀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63. 친구들과 게임할 때, 장난감 공이 하나 필요하다면?

- ㉠ 하나 구하도록 노력한다.
- ㉡ 신문지 같은 것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우선 논다.

64. 어느 쪽을 좋아하나요?

- ㉠ 내가 손으로 직접 무엇을 만드는 일
- ㉡ 앉아서 상상해 보고 공상해 보는 일

65. 동굴을 생각하면?

- ㉠ 어두침침하고 무서워 보인다.
- ㉡ 뭔가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세계를 안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66. 나는?

- ㉠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대체로 같이 좋아한다.
- ㉡ 다른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67. 생일 파티를 할 때

- ㉠ 나는 먼저 계획을 세운다.
- ㉡ 나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친구들이 즐겁게 놀다 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부터 가진다.

68. 주위에 친구들이 많으면

- ㉠ 얘기할 사람이 많아서 좋다.
- ㉡ 처음엔 좋으나 좀 있으면 피곤해진다.

69. 어느 쪽을 더 좋아하나요?

- ㉠ 위인전이나 역사만화
- ㉡ 공상과학 이야기

70. 어른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일은

- ㉠ 쉬운 편이다.
 - ㉡ 어렵고 쑥스러운 편이다.
-

스트레스 대처행동 측정 검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떠한 행동으로 대처해 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입니다.

이 질문지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표 하면 됩니다.

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본 연구자의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 선 회

학교	_____ 초등학교 ___ 학년 ___ 반 _____ 번		
이름		성별	남 () 여 ()

우리는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학교 공부나 시험으로 인한 걱정, 친구 사귀기, 형제간의 일들로 인해 긴장을 느끼고 짜증이 늘며 마음에 부담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떤 상황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불안이나 긴장, 짜증, 부담감 등을 스트레스라 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일 또는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 가장 기억에 남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인지 한가지만 골라 ○표 하세요.

- | | |
|-------------------------|---------------|
| ① 가정에서의 어머니, 아버지와 관련된 일 | ② 형제 또는 친척의 일 |
| ③ 공부 또는 시험과 관련된 일 | ④ 친구와 관련된 일 |
| ⑤ 선생님과 관련된 일 | ⑥ 기타 |

● 스트레스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 위에서 기록한 스트레스 내용을 생각하며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해당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2. 혼자 조용히 운다.	1	2	3	4
3.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놀려주거나 욕해 준다.	1	2	3	4
4.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청한다.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 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5.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1	2	3	4
6. 좋아하는 강아지나 인형, 사진 같은 것을 보면서 속상하거나 슬픈 내 마음을 얘기한다.	1	2	3	4
7.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때려준다.	1	2	3	4
8.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을 하며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1	2	3	4
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1	2	3	4
10.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는 죽는 것을 생각해본다.	1	2	3	4
11.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본다.	1	2	3	4
12. 친한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도움을 구한다.	1	2	3	4
13.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배울 점을 찾아본다.	1	2	3	4
14. 그런 문제를 당한 내가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한다.	1	2	3	4
15.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진다.	1	2	3	4
16. 부모님께 나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도움을 구한다.	1	2	3	4
17. 문제가 생긴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1	2	3	4
18. 생활하면서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잊으려고 애쓴다.	1	2	3	4
19. 친구나 가족에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든 사람을 욕하거나 좋지 않게 얘기한다.	1	2	3	4
20.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1	2	3	4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